

지역 매아리

# 혁명의 시작점 백산대회의 성역화

### 정읍시, 조달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7일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2018년도 조달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조달청은 조달청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중 조달서비스 이용실적, 조달실적 신장률, 조달사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달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물품의 구매, 공사·용역계약 등의 업무 추진 시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 높게 평가 되었다. 2018년 정읍시의 조달 이용실적은 2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원(26%)이 신장하여 조달사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더욱 더 투명한 계약 집행을 통해 발전하는 우수 행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우수기관 표창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가 전북도가 주관한 '2018년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정읍시가 수상하게 된 요인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공급 등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 출산, 수유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평생 건강관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건소에서는 영양 위험요인인 신체계측, 빈혈, 영양섭취상태 검사 중 한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만6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출산·수유부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00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선정된 대상 세대에 대해 12가지 보충영양식품을 해당 패키지별로 월 2회 제공하고, 영양교육과 상담, 가정방문을 통해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결과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평생건강 유지 관리 기반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해소와 더불어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 문체부장관 면담... 백산성 동화랜드 등 국가예산 확보 집중

권익현 부안군수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도종환 장관을 면담하고 백산성 동화랜드 조성사업과 고려 건국 1100년 기념 남북한 청자 교류전 개최 및 공동연구사업 등을 제안했다.

백산성 동화랜드 조성사업은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일원에 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동화농민협회가 최초로 전국적인 조지체계를 갖추고 강령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혁명의 시작점이 된 백산대회의 성역화를 위한 사업이다.

동화농민협회가 기념관과 기념공원, 기념탑, 편의시설, 부안지역 유적지 정비 등으로 추진된다.

남북한 청자교류전은 남북의 대표적 고려 문화유산인 청자를 주제로 합동 전시를 개최해 남북이 고려라는 하나의 뿌리를 가진 한 민족임을 알리기 위해 구상했다.

특히 고려문화의 산실로 생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도종환 장관을 면담했다.

(부안)와 소비지(북한 개성)를 연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종환 장관은 "동화농민협회가 성지화를 위한 백산성 동화랜드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

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 건국 1100년을 맞아 고려삼강청장의 주 생산자인 부안과 주 소비지인 북한 개성의 문화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의 건강한 먹거리, 식품시장 정면 돌파

###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고창 식품업체 22곳에 기술이전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유기상)가 지난 26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유기상 군수, 지역 식품업체와 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식을 열었다.

이날 기술이전식은 고창식품연구소가 올해 지역농가는 물론, 식품업체들과 협력해 발굴한 기술 노하우를 총 22곳의 업체에 전달하고, 신제품을 전시·홍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연구소에서 보유한 특허 2건(북분자 씨앗 추출물 활용 화장품·임육용품, 색다른 북분자 주 제조방법 등)을 관련 업체에 이전했다.

또 선운산야생꽃차(대표 이탄우)는 꽃차 티백과 목티(식용꽃 음료)를, 홍삼베리(대표 유금호)는 홍삼에너지드링크와 홍삼베리 쿠키 제조기술을 이전받았다.

여기에 스마일팜(대표 김숙자)은 헤이즐넛 밀크캡슐, 블랙푸드 영양조합법(대표 장진기)은 고도약주, 호야농장(대표 이종현)은 빼빼기 팔죽을, 열리파람(대표 박민수)은 단호박 밀크캡슐, 신도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지난 26일 고창군청에서 유기상 군수, 지역 식품업체와 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식을 열었다.

북분자영농조합법인(대표 안문규)은 북분자 식초가 함유된 드레싱 소스 등 고창지역 16개 식품업체가 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지원받아 식품산업 개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예정이다.

이번 연구소에서 개발된 소스 등의 노하우는 최근 건강식·가정간편식·육방 열풍에 걸맞은 기술개발로 업체들의 관심이 컸다. 특히 사업화를 통해 지역 식품 산업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의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건강한 먹거리는 강점을 부각시켜 어려운 식품시장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소 이사장 유기상 고창군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식품업체와 농가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 청년 메이커센터, 지역일자리 육성공모사업 선정

###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2020년까지 기술교육장 등 갖춘 센터 건립

'정읍 청년 메이커 센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일자리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시비 5억원을 더한 총 1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 메이커 센터(maker center)를 건립할 예정이다.

2층 규모로 조성될 청년메이커 센터는 시유지인 상동 379-6번지의 9필지(872㎡)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기술교육장과 창업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청년 메이커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메이커(maker) 양성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다.

유진섭 시장은 "청년 메이커센터 초기 교육과정으로 슈메이커(shoe maker/수제화기술인력) 양성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때 성황을 이뤘던 수도권 수제화산업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임차료 상승으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데다 기술인력 고령화(평균연령 63세)

로 제화산업이 소멸될 위기에 놓인 현실과 연관돼 있다. 지방의 저렴한 땅과 인력 공급으로 오히려 비교우위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풀이된다.

유 시장은 "청년메이커센터 조성을 통해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 정읍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앞서 시는 총 15억9,000만원이 투입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도 선정돼 27개 유형 97명의 청년일자리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 초 합동 채용 박람회 등을 개최해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공약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일자리 모델 육성 공모사업은 정부(행안부)가 40억원을 투입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별 특화 일자리 정책을 확산·전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읍 청년 메이커 센터 조성사업은 전북도 대표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적기적시 농가 지원으로 원활한 영농준비 도모

### 부안군, 안정자금 60억원 융자 지원

부안군은 농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을 위한 2019년도 영농안정자금 60억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 금리는 농가부담 1%, 3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이다.

영농안정자금은 시설자금, 영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구입 및 유통가공시설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19년 1

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군 농업경영과 관계자는 "2019년도 영농안정자금 운용으로 자금이 부족한 농가에 낮은 이자로 융자 지원을 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기대된다"며, 관내 많은 농업인들이 영농안정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금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 '완료'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명품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 안정적 유통시스템을 위한 '저온창고 구축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수산물 수급 조절과 신선도 유지를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군은 지난 2월 사업자를 모집해 10곳의 어가를 선정했고, 이달 중순까지

지원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이에 따라 생산한 수산물의 저온처리 가능하게 되면서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유통과정 중 품질저하를 방지해 어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군은 내년에는 어업인,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영어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10㎡이상의 어업용 저온저장고 7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1월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GIFT SET 1E   750ml 2ea, 잔 2ea/16%</p>	<p>GIFT SET 2E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p>	<p>GIFT SET 3E   750ml 1ea/12%</p>
<p>GIFT SET 4E   500ml 2ea, 잔 2ea/12%</p>	<p>GIFT SET 5E   375ml 5ea/13%</p>	<p>GIFT SET 6E   500ml 2ea/12%, 북분자1ea/13%, 잔 1ea, 오프너</p>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80  
www.gangsanwine.com